금주의 법구–〈법구경〉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월 18일)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보살행 진력한 정관 대종사 마지막 가시는 길

보살의 삶을 실천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영결식이 1월 30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해 대종사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사진은 대종사의 법구를 다비장으로 이운하는 모습. **사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승려복지 업그레이드할 '스님 전문 요양병원' 개원한다



조계종은 1월 30일 의료법인 인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1월 30일 인덕원과 MOU
'파라밀 요양병원' 종단 직영 합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명칭 변경
새 이사장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각현 스님의 연꽃마을 설립으로 시작돼 월탄 대종사의 승려복지에 대한 원력, 성운 스님의 보현행원으로 조계종 대표 요양기관으로 성장한 의료법인 인덕원 파라밀 요양병원이 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스님 전문 요양병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료법인 인덕원(대표이사 성운)과 업무협약을 맺고 파라밀 요양병원의 종단 직영전환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파라밀 요양병원은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운영하며 명칭도 '아마타 불교요양병원' 으로 변경된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파라밀 요양병원은 2008년 7월 故 각현 스님의 원력으로 개원한 불교계 요양병원이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대지 25,525㎡(7721평)에 병원면적 8,492㎡(2568평)로 지하1층, 지상6층에 총 145병상 31실(최대 198병상 확보 가능)로 양 · 한방 전문 진료기능을 갖추고 있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공약이었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스님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요양병원을 종단에 희사하기로 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종단은 당초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운 스님의 희사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을 예상보다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건 없이 요양병원을 종단에 희사한 성운 스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승려 노후가 안정돼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고 종단 안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면서 "설립자 각현 스님과 성운 스님의 큰 뜻을 존중, 원활한 운영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운영에 나섬에 따라 법인 이사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는다. 이사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교구본사주지 협의회장 정도 스님,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 전국비구니회 정관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총무국장 향림 스님으로 구성됐다. 감사에는 재무부장 우화 스님과 김봉석 변호사가 참여한다.

협약식에 앞서 승려복지회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승려복지회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스템이 완료되면 5월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에 개원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임종까지 승가의 위의와 존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불교 전통 다비장 설치 ·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권역별, 교구별 다비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모범적 사례를 수집해 시설과 의례의식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단과 사찰에서 장례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할 수 있으며, 종단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전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종단의 원력사업에 힘을 보내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흔쾌히 종단에 병원을 희사하는데 동의한 전임 이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승려복지회장 호산 스님은 "성운 스님의 큰 뜻으로 종단 승려복지가 10년은 앞당겨졌다"면서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노후에 승가의 위의를 지켜면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된 승려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존중' 기치로 '붓다의 길' 걷는다

키워드로 미리 본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처럼 43일 '정진'
'중흥' 염원 하나로 모아
국민 '화합'과 사절 역할
'평화 · 생명' 활동 예고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생명존중' 의 대사회 메시지 속에 진행된다. 수행과 전법포교,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라는 큰 굴레 안에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 위한 43일간 1,167km의 대장정이 곧 펼쳐진다.

정진 상월결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대작불사다. 상월결사는 △사부대중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세계만방 평화결사의 4대 선언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인도순례는 이러한 4대 결사 선언이 이뤄지지만, 이 중 특히 정진결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 순례 기간에는 '부처님과 함께 걷는다' 라는 일념으로 매일 정진이 이어진다. 각 숙영지에서는 새벽 2시 도량석에 이어 칠정례 예불과 발원문 합송이 진행된다. 순례단 선두에는 한국에서 모셔간 부처님상이 이끈다. 사부대중이 조별로 돌아가며 이 부처님상을 모시고 행선할 예정이다. 숙영지에서는 매일 108배와 함께 이산혜원선사의 발원문이 합송된다.

중흥 불교중흥을 위한 불자들의 염원도 하나로 모인다. 먼저 출국일인 2월 9일에는 조계사에서 고불식이 봉행된다.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직접 순례단을 격려하는 법문을 내리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1000여 불자들의 환송 속에 순례단은 인도로 향한다.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의식도 각 성지마다 펼쳐진다. 2월 11일 바라나시 녹야원 입재법회 후 2월 22일 마하보디사원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 2월 25일 라지기르 영축산에서 법화경 독송법회, 3월 9일 열반지 법회 및 가사공양의식, 3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는 금강경 봉정과 공양의식이 진행된다. 순례단이 거쳐가는 나란다대학에서는 종립 동국대가 새롭게 문을 여는 나란다대학 측과 공동으로 6개국 학자들이 동참하는 '순례'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순례 도착에 맞춰 동국대는 나란다대학과 자매결연도 맺을 예정이다. 한국불교중흥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다시금 불교가 융성하기를 발원하는 자리다.

화합 이번 순례는 한국과 인도 간 외교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우의를 높이는 기폭제도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해 2000 여명의 한국불자들이 인도를 찾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인도정부에서도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답사를 통해 인도정부 측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2월 6일에는 인도 현지에서 기자회견도 열렸다.

아밋 쿠미르 주한 인도대사 등이 정초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데 이어 2월 2일에는 외교부에서 제2차관 주재 하에 '조계종 인도, 네팔 성지순례 최종 점검회의' 를 열고 순례단의 사절단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한국 ·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화 1월 31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준비모임에서는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슬로건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표어는 '생명아 널 사랑해' 로 젊은 세대들도 생명존중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 상월결사 측은 인도 순례 전부터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세계평화 등을 발원하는 평화방생순례 등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상월결사가 인도순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실천까지 전개됨을 예고한다.

상월결사 대변인 정호 스님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인도에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행"이라며 "순례단은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발원하며 붓다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 총림 방장 동안거 해제 법어 6면

가사불사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

袈裟佛事 生前豫修齋
스님들께 법의를 공양 올리고 스스로의 사후공덕을 미리 닦는다

가사불사
입재 2월 27일 월요일 (음 2. 8) 오전 10시
회향 4월 9일 일요일 (음 윤 2. 19) 오전 10시
동참금 스님지정 7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예수재
입재 2월 27일 월요일 (음 2. 8) 오전 10시
회향 4월 16일 일요일 (음 윤 2. 26)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 망 설판 10만원, 영가 1위 1만원

입재	2월 27일 월요일 (음 2. 8) 도솔래의상 법문(출가재일)	현문스님 통도사 주지
3재	3월 19일 일요일 (음 2. 28)	법산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5재	4월 2일 일요일 (음 윤 2. 12)	덕문스님 통도사 율주

※ 초재 · 2재 · 4재 · 6재 · 막재는 법문이 없습니다.

문의 • 기도 접수처(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